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8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백영기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박우민(6581) / 보험정책팀 대리 강지윤(6578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1208호

시행일자 2026. 1. 1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8126호(2025. 12. 10.)

3. 보건복지부는 '25.10.20. 중대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

4. 이와 관련,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'응급의학과'를 추가하여 재변경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구분	종전조치('25. 10. 20.)	변경조치('25. 12. 15.)
법적근거	「의료법」제33조제1항제3호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	
적용대상	<p>①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「의료법」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b>필수진료과목*으로 한정</b>하여 종전조치 지속</p> <p>*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, 치과</p> <p>**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'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'을 통해 '기타' 인력으로 신고</p>	<p>①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「의료법」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b>필수진료과목</b></p> <p>② <b>응급의학과</b></p>
시행시기	<p>-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</p> <p>- <b>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.12.31. 종료</b></p>	<p>- 필수진료과목+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</p> <p>- <b>필수진료과목 + 응급의학과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.12.31. 종료</b></p>

※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T. 1644-2000) 끝.

#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\* 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(각과 개원의협의회)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한병원의사협의회, 대한병원장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